

사회

■ 市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 동행 르포

“유해 농산물 유통 막자” 밤샘 작업

매일 20여 품목 선정 2교대 검사

“부적합률이 낮아 지는 것 만큼 큰 보람은 없죠.”

지난 12일 밤 8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늦은 시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채소류를 매서운 눈초리로 살폈다. 다음날 새벽 경매가 시작되기 전, 갓 들어온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마치고 위해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검사소 직원들은 매일 회의를 거쳐 검사 품목을 정한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검사 품목은 부추, 썬배추, 고추, 취나물 등 9가지 채소류. 직원들은 생산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동에 위치한 검사소로 물건들을 옮겼다. 검사소는 서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각화동농수산물시장을 2교대로 검사하고 있다.

시계 바늘이 9시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사소 직원들의 일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분쇄작업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분쇄를 마친 채소는 찌꺼기와 용액을 나눈 뒤 수분을 분리해냈다. 대부분의 채소가 녹색을 띄고 있지만 분리했을 때는 갈색, 청록색, 연두색 등 고유의 색깔이 달랐다.

직원들은 수분을 빼낸 용액을 압축

기에 넣고 농축한 다음, 농약성분을 정제하고, 또 2차 농축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여과 단계를 거쳐 국내에 한대뿐인 ‘LG/GL Q-ToF 질량 분석기’ 등 첨단 장비로 이용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모두 5시간이 소요된다. 또 부적합 관정이 나오면 재검 과정을 거친다. 밤을 꼬박 새우는 작업이다.

이날은 계수에서 농약성분인 ‘히아조파미드’ 0.5ppm이 검출됐지만 기

준치(2.0ppm) 이하여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새벽 경매를 1시간 앞둔 13일 새벽 4시께. 직원들은 다시 채소동으로 달려가 ‘적합’관정 스티커를 붙였다. 검사를 위해 수거했던 농산물은 광주지역 7개 복지시설로 보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조치된다. 그리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재배지 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검사소는 올해는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2000건, 마트·백화점 등 유통농산물 1000건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

다.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검사소를 거처가는 셈이다. 읍들이 모두 1348건의 농산물 검사를 진행했고 부적합은 부추(4건), 깻잎, 썬배 등 9건으로 0.7% 수준에 그쳤다. 검사소가 생기기 전인 지난 2010년 2%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계원 농수산물검사소 소장은 “검사소가 생기기 전부터는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들의 의식도 크게 개선되는 등 검사소가 유해 농산물의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12일 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이 서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온 채소류를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여수 박람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공방

“월 6200만원 손실” VS “관람객 편의 제공”

버스조합, 광주시 20차례 고발·소송 검토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가 운영 중인 여수세계박람회 셔틀버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지난달 무료 셔틀버스의 적법성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공문을 보내 ‘운영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벗어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이를 근거로 관할 구

청인 광주시 북구청에 상급기관인 광주시를 20여 차례나 고발했다. 정기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시외버스의 노선면허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이유이다. 조합 측은 광주~여수를 잇는 시외버스의 요금에 왕복 1만9600원인 점을 감안, 개막 후 한 달간(5월 12일~6월 12일) 6200만원의 손실

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광주시가 전남도의 동의를 얻어 한정면허로 합법 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시외버스 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특정 관광버스 업체에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는 그러나 셔틀버스가 ▲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부정기 운행이라는 점을 들어 정기 시외버스와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시는 또 북구청이 전남버스조합의 고발과 관련 ‘불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제외’ 통보를 내려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반응도 좋아 당장 중단하긴 힘들다”며 “순천과 보성 등 다른 지자체도 운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광주시만 걸고 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버스조합 측은 광주시의 무료 운행이 계속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부산시 교육감 옷 로비 수사

유치원 원장과 광주 의상실서 옷 맞춰

임해경 부산시 교육감이 유치원 업무에서부터 옷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임 교육감이 지난해 4월 유치원 원장 2명으로 부터 200만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중순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2명과 함께 광주에 있는 한 유명 의상실에 가서 원피스와 재킷 등 3점의 의류(2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상실은 체형에 맞게 옷을 맞춰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이 유치원 업무에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진정

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의상실과 관련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당시 의류 구입 카드전표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임 교육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옷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5월 중순 가족을 통해 부산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받은 옷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2과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옷 로비를 받은 뒤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줬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유아교육 업무와 관련 일부 대가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옷 로비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내 유아교육 관련 담당과장 등 2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임 교육감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장원 전 광주여대 총장 징역 3년

“교비횡령 죄질 나쁘다” 도서관 동생은 구속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오장원(56)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또 오 전 총장의 동생이자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모(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총장 형제와 함께 기소된 광주여대 경리직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과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 집안이 기여해 사립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을 자자손손 개인 기업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오 전 총장은 설립자인 부친의 자가용을 구입하고 가사 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집안 생활비로 사용해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오 전 총장 형제는 교비 15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학 도서관과 본부 신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인 살해 50대 8년 선고

의부증이 있는 아내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3일 금전 문제로 불화를 겪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가정 불화와 가족 단절, 자살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날 강도범 금은방도 털어

○“어린이날 강도사건”과 ‘부녀자 납치사건’(본보 5월30일자 6면)의 주범으로 구속된 문모(37)씨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20대와 금은방 강도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들린다.

○13일 광주서부경찰은 문씨가 박모(29)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인후동 황모(여·54)씨의 금은방에서, 황씨를 폭행하고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으로 만난 또 다른 공모들과 강도와 유괴, 납치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집중 추궁.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내 잤은 외박은 친구 탕”

순천경찰, 강도 위장 아내친구 살해 30대 영장

순천경찰은 13일 아내가 친구와 어울리며 외박하자 자주 어울리던 아내친구를 살해한 박모(32)씨를 살인 혐의로 불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 A(여·3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박씨는 범행 후 여관에 은신해 있다가 이날 오후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잤은 외박을 해 부부사이가 나빠지자 모든 원인이 아내와 자주 어울려 다니던 이웃집 여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질적인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코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90204-중-4738호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처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rob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It lists three lots with their respective dates, prices, and status (all '유찰').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